

1

1월 해양사고 현황 (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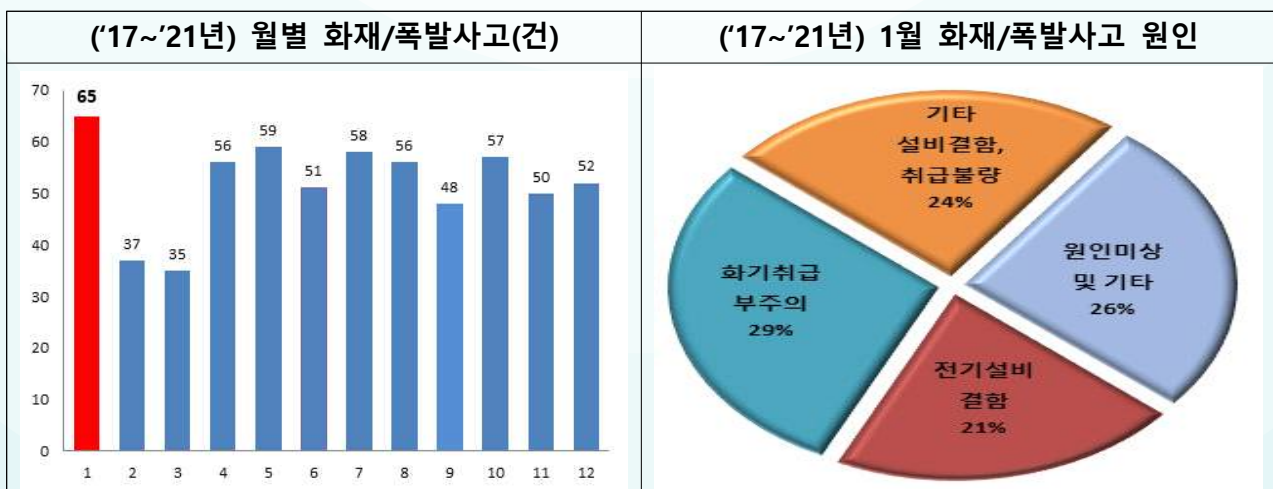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1월 평균 193건 발생, 화재·폭발사고가 많은 시기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93	146	182	201	230	246	257	264	323	314	250	214

- (사고유형별) 사고 건수는 총 964건. 주요사고는 충돌 96건, 안전사고 71건, 화재·폭발 65건, 전복 34건, 침몰 17건 등의 순으로 발생
- (선박종류별) 사고 선박은 총 1,090척. 어선 764척, 수상레저기구 97척, 화물선 54척, 유조선 51척, 예인선 46척, 여객선 17척 등의 순으로 발생

□ 1월은 화재·폭발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전열기기 취급 주의, 전기설비 점검 등 화재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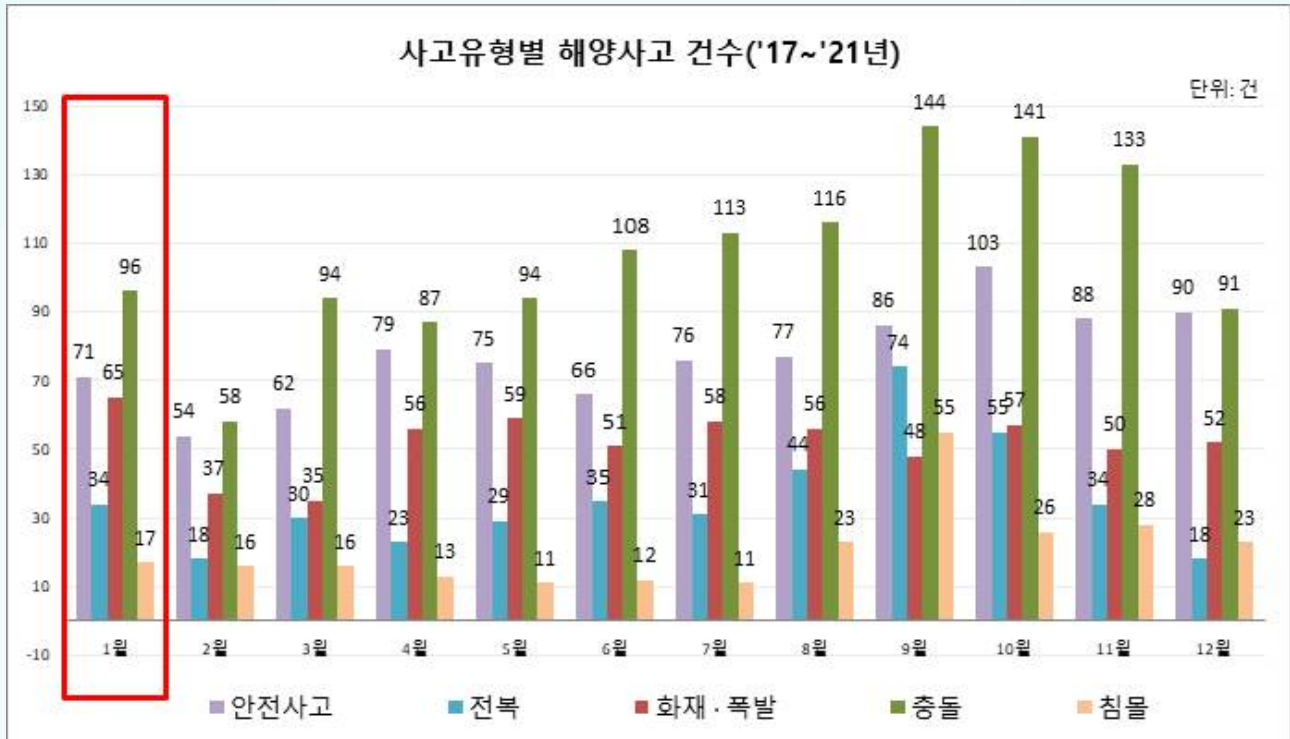
- (사고현황) 최근 5년간 1월에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는 총 65건으로 연중 가장 많으며, 타월 평균 대비해서는 약 28% 증가
- (사고원인)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으며(29%), 전선 등 전기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상당부분(21%)을 차지
 - * 용접작업 중 주위 가연물에 불꽃이 튼, 난방용 전열기기 취급 부적절
 - ** 발전기·배터리 연결 전기배선 과열·단락에 의한 점화, 전선 과부하에 의한 합선 등
- (사고예방) 용접작업 및 난방기 사용 시 주변 인화물 정리 등 화재 안전 관리 철저, 노후 전선 교체 등 정기적인 전기설비 점검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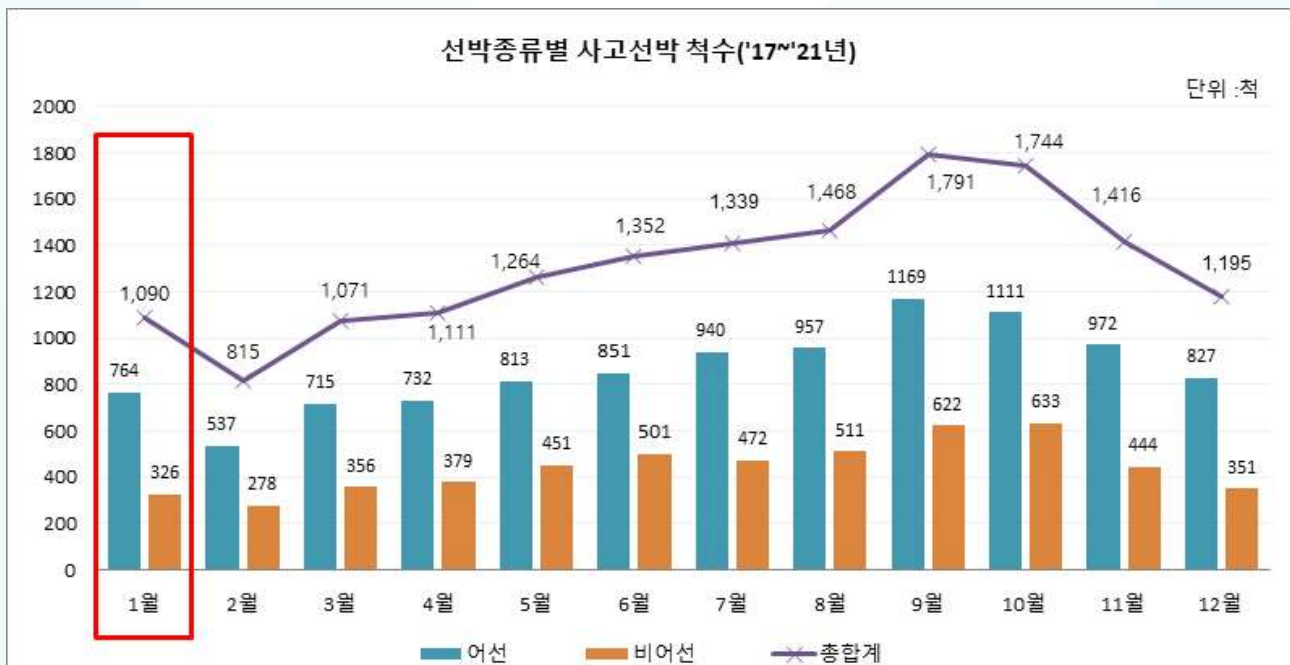
2

최근 5년간 월별 해양사고 현황(2017~2021)

1.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2. 선박종류별 해양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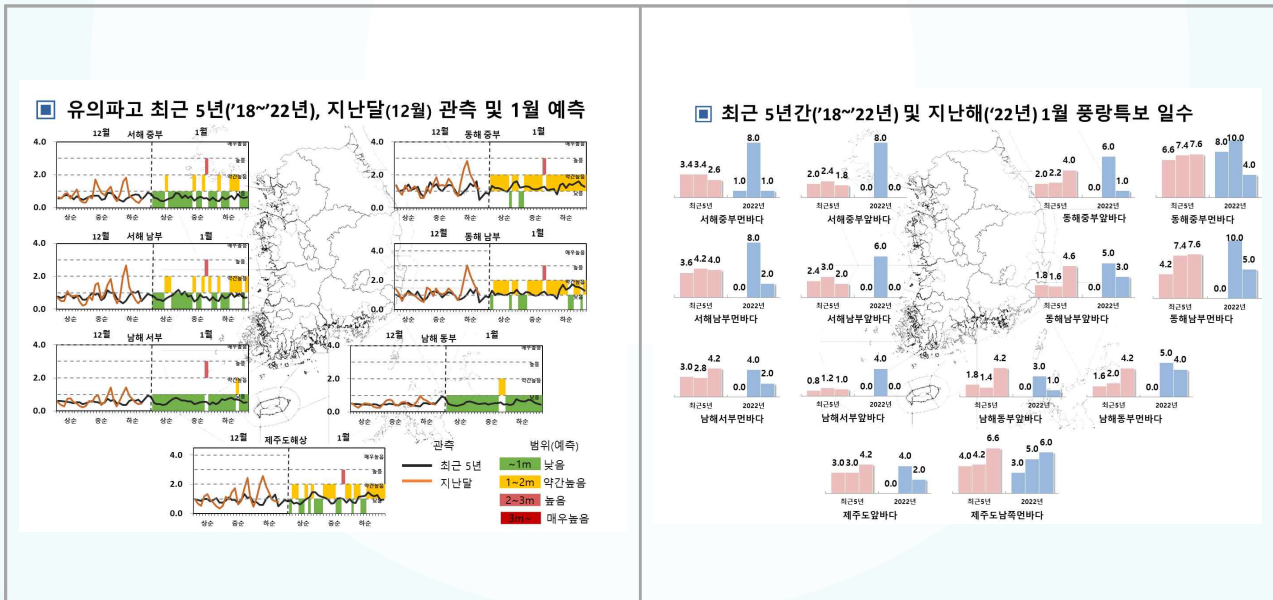
1. 2023년 1월 기상정보 [출처 : 기상청]

○ 1월 해양 특성(최근 5년('17~'21년))



○ '22년 1월 유의파고 및 수온 예측정보

- (유의파고) 동해상과 제주도해상은 대체로 약간 높겠고 남해상은 대체로 낮겠음.
서해상은 중순과 하순에 약간 높은 날이 많겠음
- (수온) 서해 6.0~11.0°C, 남해 9.0~18.0°C, 동해 9.0~15.0°C의 분포를 보이겠음



2. 기상청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음성방송) 선박에 설치된 SSB 송수신기로 주파수 5,787.5KHz를 설정, 24시간 해양기상정보 및 예보를 제공

(문자전송)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문자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를 제공 (marine.kma.go.kr, 가입 및 신청 필요)

(안내전화) 기상청 일기예보 안내전화 131(ARS 및 상담)

1. 어선 A호 화재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A호 : 어선, 16톤, 길이 18.27미터, 디젤기관 365킬로와트 2기
	일시	2019. 1. 24. 06:30경
	장소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항 내 부두
	피해	기관실 전소, 조타실 일부 손상
	날씨	북서풍 초속 6~8m, 파고 약 0.5m, 시정 약 3마일
원인	<p>조업을 마치고 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 부두에 계류한 직후부터 기관실에서 화재가 시작되었으나 선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선하였고 이후 화재가 진행되어 기관실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p> <p>축전지와 주기관 시동모터를 연결하는 전선이 주변 구조물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단락되었던 것이 화재의 원인</p>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고온의 열, 진동 및 염분 유입 등으로 노후·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정기적인 절연저항 측정을 통해 절연상태 등을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함 ○ 출항 전 기관실 점검을 통해 기관실 누수, 누유 및 전기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항 후에도 기관실을 확인하여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하선하여야 함 	

2. 어선 B호 화재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B호 : 어선, 24톤, 길이 19.95미터, 디젤기관 446킬로와트 1기
	일시 장소	2018. 1. 22. 00:00경 통영시 매물도 남방 약 10.5마일 해상
	피해	식당 일부 소손, 선원 4명 화상 등 부상
	날씨	북서풍 초속 8~10m, 파고 약 1.5m
원인	<p>항해 중인 어선의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 조타실에 있던 선장이 CCTV를 통해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 등으로 화재 진압</p> <p>식당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선원이 식당 내 전기 히터를 끄지 않은 채 침실로 이동하였고, 이후 식당의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에 의해 식당 내 휴지통의 휴지가 날려 전기 히터와 접촉함으로써 화재가 시작</p>	
교훈	<p>○ 선내에서 전열기구의 사용은 제한되어야 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자리를 떠날 때에는 전열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함</p>	